

“농촌 위기를 기회로 ... 농·수산 소득 1조원 시대 열겠다”

민선 6기 단체장에 듣는다 박철환 해남군수

태어나서 지금까지 해남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은 박철환(55) 해남군수. 그는 공무원, 군의원, 군의회 의장 등을 거쳐 6·4 지방선거에서 재선 군수라는 영예를 안았다. 나고 자란 고향에서 공직과 의정을 모두 경험하고 군수를 맡게 된 그가 강조한 것은 ‘소통’과 ‘원칙’이었다.



주민들과 스스로없이 통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벌이지 않겠다는 그의 다짐이기도 했다. 그 흔한 산업단지 개발이나 기업·자본 유치 실적도, 거창한 공약이나 대규모 인사 쇄신도 박 군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공직자들에게 ‘지시’하는 일도 거의 없다. 방향성은 제시하되 구체적인 업무는 스스로 할 것을 주문하고, 성과를 내면 그만큼의 대가를 주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임을 잊지 않는다.

“단체장이 성과를 내기 위해 정작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이 외부에서 자금을 유치하지 않아도 해남이 가진 자원만으로 충분히 발전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내놓은 대표 공약은 ‘힐링 시티 해남 건설’과 ‘농·수산업 1조원 시대 실현’이다. 지금 온 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힐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주민들이 해남에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도록 하겠다는 군수의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 다음 해남을 찾는 외국인에게 해남의 기운을 선사하겠다는 것이다. 농·수산업 1조원 역시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그着眼점이 맞춰져 있다. 그가 누구의 군수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반증이다.

박 군수는 인터뷰 후 군청사 앞마당에 자리한 천연기념물 430호 수성송(守城松) 주변을 거닐며 그늘에 앉아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스스로없이 두 손을 맞잡았다. 이 수성송은 조선 중기 해남 현감이 왜구를 물리치고 영전하면서 심은 소나무로 알려져 있으며, 수령은 400년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매형도 계시고, 알고 지내는 분들이 대부분이네요. 출·퇴근길에 이 수성송을 바라보며 이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군수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4년 후 주민들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겁니다.”

하지만 박 군수의 앞날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전남의 군(郡) 가운데 면적·인구·경제규모 등에서 1위인 해남의 여건이 그리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구는 지난 2009년 말 8만1148명에서 지난 4월 말 현재 7만7419명으로, 8만 명이 붕괴됐고, 지난 1999년 16.6%였던 재정자립도 역시 6%로 내려앉은 등 ‘농촌의 위기’는 해남이라고 해서 비켜가지 않았다.



박철환 군수 프로필 ▲대불대 법학과 졸업 ▲2002~2010년 제4·5대 해남군의원 ▲2008~2010년 해남군의회의장 ▲2010~2014 제42대 해남군수

- 취임식을 땅끝 전방대에서 간단하게 치렀다는데.

▲두 번째 취임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민선 6기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대내외에 공포하고자 했다. 해남의 상징인 땅

끝에서 군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다졌고, 가학산 휴양림을 찾아 어린이들과 함께 기념식수를 하며 민선 6기 키워드인 ‘치유와 힐링’을 고민했다.

- 소통을 강조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해남 떠나지 않아 군정의 모토는 주민들과 소통·원칙 행정 귀농인 학교·귀농인촌 조성 어울려 살 수 있게

▲나고 자란 고향이고, 대부분 아는 분들인데도 주민과의 소통은 여전히 난제다. 이제까지 주변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군정에 반영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아직도 부족함을 깨달았다. 주민참여 예산제에도 해남이 가장 먼저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알고 있는 군민은 그리 많지 않았다. 군수의 잘못이며, 앞으로는 소통을 군정의 모토로 삼았다.

- 공무원에서 군의원을 거쳐 군수 재선까지 성공했는데.

▲정당이 지지체를 잘못 이끌고 있다고 생각해 군의원에 나서게 됐다. 행정의 잘잘못을 지적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원이 또 다른 권력기관이 돼 버렸다. 군의원으로 당선되고 난 뒤 관행적인 사업에 제동을 걸었고, 인사나 군정에 대한 무분별한 참여를 억제했으며, 최대한 건전한 비판을 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과정들이 지금 군수직을 수행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이다.

- 힐링이라는 표현이 흔한 감이 있다.

▲해남의 힐링은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말이다. 우선 군민이 행복하고 잘 살아야 하며, 농·수산업부터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모두 외지인을 힐링해 줄 수 있는 준비가 갖춰져야 가능하다. 그러한 자신감에서 해남에 오는 모든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겠다는 것이 민선 6기 해남의 목표다. 어린이를 위한 치유의 숲, 지역 특화자원으로 조리하는 치유음식 특화단지 등을 만들고 지역문화인들과 논의해 문화재단을 설립해 해남의 문화를 외지인들에게 선보이겠다.

- 전국 최초 농·수산업 1조원 시대를 약속했다.

▲이미 지난해 말 940억원을 달성한 바 있다. 집계에는 김(550억원)이 제외돼

거의 1조원에 근접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민의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농업의 경우 방향을 바로잡아 권역별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마다 특화작목을 결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가공·유통 주식회사를 설립해 부가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한 포대에 100만원씩 하는 쌀,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고, 부추, 감자, 배추를 생산하는 곳이 해남이 돼야 한다.

수산업에서는 꼬막·새우 등 고부가가치 품목에 집중하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 해 소득이 1억원, 2억원이 넘는 농가들이 급증하고, ‘농·수산업 1조원’을 군민이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것이다. 농·수산업 1조원은 지금까지 희망이 없었다 여겼던 농촌에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 축제 개최나 기업 유치 등에는 소극적이라는 말이 있다.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축제는 지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 대학에 군민에게 보탬이 되는 축제의 용역을 의뢰했는데, 현재 시스템에서 축제료 돈 벌기가 어렵다는 말만 돌아왔다. 수년째 같은 답변이다. 내실 있는 축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다.

대신 땅끝 작은 음악회, 가학산 휴양림 작은 음악회, 동네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속놀이 등 외형보다는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내실있고 조그만 축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기업이나 공장 유치는 오히려 주민들이 마다한다. 친환경 기업이 들어오면 좋을 텐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무엇보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뿐이다.

- 돌아오는 해남을 위한 대책은.

▲지난해 해남에 귀농·귀촌한 세대가 600세대 정도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귀농인 학교를 만들고 귀농인촌을 조성해 그들이 서로 기대고 어울려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생각이 다.

/유희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힐링 시티 해남’ 건설

군민들이 행복한 해남 만들기 최우선

치유의 숲·치유음식 단지 조성

해남에 오는 관광객들의 마음 치유

• 농·수산업 1조원 시대

특화작목 육성에 유통·가공시설까지

역대 소득 올리는 군민 늘려

농어촌에 새로운 희망 심겠다

시내지국

광천	366-8375
남광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옹봉	522-7752
우산	512-8116
원천	371-9818
울골	961-2339
중양	222-1896
중흥	224-8604
진철	673-1600
침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풍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6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33-991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예향’은 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입니다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2**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향구독_062 220-0550